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덕온공주 집안 서대(犀帶)의 보존처리 및 특징

Conservation treat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belt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황진영*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Hwang Jinyoung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National Museum of Korea

요약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덕온공주 집안 서대는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시를 위해 소장처의 의뢰로 응급처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처리의 목적은 전시를 위한 원형 유지가 우선이었으며, 서대는 훼손이 심하여 형태복원 및 탈락된 띠돈의 고정이 필요했다. 처리 전 서대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조의 명칭, 시대에 따른 형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보존처리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삼았다. 품대 중 서대는 1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품대로 왕의 옥대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품대이다. 서대를 장식하는 무소뿔[서각]은 품질에 따라 3가지 양식의 무늬로 구분되는데, 그 중 주변으로 작은 원형의 흑갈색 무늬가 중앙에 밀집한 모습으로 포도문과 유사한 양식으로 고급품에 속하는 질 좋은 서대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버클이 없는 일체형 구조이며, 각이 진 방향의 품대로 19세기 이후 주로 착용되는 품대의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대의 구조를 확인하여 제작방식을 파악하였으며, 유물과 초상화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서대의 형태적 특징, 그리고 세부 구조 등을 살펴서 보존처리 대상 유물이 19~20세기 제작된 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서대, 허리띠, 덕온공주, 윤용구, 관복

Abstract

The *Belt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known as a *seodae* in Korean) from the family of Princess Deokon's descendants housed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underwent emergency treatment for a special exhibition in 2019 upon the request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Priority was given to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the severely damaged belt and the repair of its detached horn ornaments. Prior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researchers conducted a theoretical study of the belt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to learn the names of its structural components and the changes in form that the type experienced by period, thereby establishing a plan for conservation treatment and setting a direction. Among the belts worn by officials from the Joseon dynasty, rhinoceros-horn ornaments were attached to those of officials of the first rank and were considered the most precious behind the king's belt with its jade ornaments. The rhinoceros horn adorning the belt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quality. This belt has horn ornaments of the highest quality, falling under the "grape design" category with dark brown dots concentrated in the center. The belt has a rectangular shape and lacks a buckle, reflecting a popular form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he structure of the belt was identified over the process of conservation treatment, offering information about its method of production. In addition, comparison of the relic with belts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depicted in Joseon-period portraits of officials allowed the identification of changes in formal features and the detailed structures of belts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by period. It confirmed that the belt subject to conservation treatment shows the features of belts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produced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Keywords : *Seodae*(Belt with Rhinoceros-Horn Ornaments), Belt, Princess Deokon, Yun Yonggu, Official Court Attire

* Corresponding Author:
Hwang Jinyoung

Tel: 82-2-2077-9443
E-mail: sugar09@korea.kr

투고일: 2021.03.31. 심사(수정)일: 2021.04.22. 게재확정일: 2021.04.29.

1. 서론

본 유물은 2019년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시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처리를 의뢰한 서대이다. 이 전시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德溫公主, 1822-1844)과 아들 윤용구(尹用求, 1853-1939), 손녀 윤백영(尹伯榮 1888-1986)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한글자료와 생활자료 200여 점의 미공개 유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윤용구가 착용하였던 관복, 쾌자, 세조대 등 과 함께 윤용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대도 공개 되었다^[1].

서대는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부 수리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번 보존처리는 전시를 위해 응급처리로 의뢰되었으며, 형태를 복구하여 원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처리하였다. 전시 이후 손상부위의 보존과 안전한 보관을 위해 추가 처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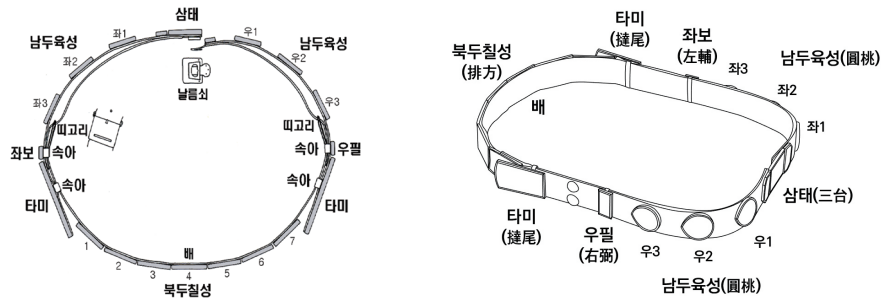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보존처리 전 서대의 이론적 연구와 남아있는 유물과 초상화를 통해 세부명칭, 시대에 따른 형태와 무늬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제작과정 및 정확한 띠돈의 위치를 파악하여 올바른 보존처리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20세기 서대의 조형성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고, 추후 유물의 보다 안전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리라 여겨진다.

2. 서대의 구조와 특징

2.1. 서대의 구조

품대의 장식을 통칭하여 띠돈이라고 하며, 품대의 명칭이 옥대, 서대, 대모대, 흑각대 등으로 분류가 된다. 그 중 서대(犀帶)는 띠돈을 무소뿔로 장식한 각대로 세자의 공복(公服)과 정1품·종1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의 관복에 조복, 제복, 상복에 착용한다 하였으며^[2], 서대는 왕의 옥대 다음으로 비싸고 귀한 품대이다.

서대의 구조는 다른 품대와 구조가 대체적으로 같으나 띠돈에 따라 착용자의 계급이 확인되며, 띠돈이 부착되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 삼태, 남두육성, 좌보·우필, 타미, 북두칠성, 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3]. 그 명칭에 해당되는 위치는 도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1. 품대의 세부 명칭

품대의 구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는데, 크게 분리형과 일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원형의 틀이 3조각으로 뿔 수 있는 분리형 구조로 이루고 있다. 품대의 양 옆면에 현재의 버클과 같은 양식의 띠고리가 있어 사이지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도2).

19세기 이후에는 원형에서 타원형 그리고 방형으로 변하면서 양 옆면의 버클이 없어지고, 3조각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변화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윤용구의 서대는 방형의 일체형 구조에 해당된다^(도3).

도2. 분리형 구조(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도3. 일체형 구조(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

- | | |
|---|---|
| a | b |
|---|---|
- (a) 분리형 구조
이은주(2011), p.140
(b) 일체형 구조
연구자 제작

- | | | |
|---|---|---|
| a | b | c |
|---|---|---|
- (a) 대모대
(b) 버클이 있는 부분
(c) 분리형 품대 도식
연구자 제작

- | | | |
|---|---|---|
| a | b | c |
|---|---|---|
- (a) 삼은대
(b) 흑각대
(c) 버클이 생략된 부분

2.2. 서대의 특징

서대의 재료는 무소뿔[서각]로 갈색바탕에 흑갈색의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무늬는 선행 연구를 통해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통천서라 불리는 최상급의 서각으로 띠돈의 중앙에 밝은 빛이 돌면서 주변으로 작은 원형의 흑갈색 무늬가 중앙에 밀집한 모습으로 『임하필기』에서는 납색포도문이라고도 하였다. 두 번째는 밝은 갈색바탕 중앙에 흑갈색의 무늬가 응집된 형태이다. 세 번째는 바탕 아래쪽으로 흑갈색 무늬가 치우친 형태가 있다^[3]. 서대는 실물의 유물보다 초상화에 많이 남아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무늬를 특징별로 포도문, 중앙배치문, 하위배치문으로 명명하여 표1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윤용구 서대의 무늬는 포도문과 유사한 양식으로 확인된다.

표1. 유물 및 초상화에 나타난 서대무늬

무늬	유물 및 초상화에 나타난 서대무늬		
포도문			
출처	윤용구 서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이산해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이하응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중앙 배치문			
출처	심동신 서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4]	전 윤효전 초상 금호미술관 소장 ^[6]	강현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하위 배치문			
출처	최석정 초상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7]	홍낙성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안윤행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3. 보존처리

3.1. 처리 전 상태조사

본 유물은 가로 32cm, 세로 41cm, 높이 5.5cm로 가죽과 면포를 배접한 틀에 자주색 문단을 감쌌다. 등에 맞닿는 배부분은 이면지를 여러 겹 겹쳐 심지로 사용하였으며, 그 위를 청색 문단으로 감싸 쿠션의 역할을 하도록 제작되었다. 착용자의 신분과 품대의 명칭에 결정되는 띠돈은 총 20개이며, 앞면의 날름쇠(개폐장치)의 삼태 3개를 기준으로 좌우 복숭아형의 남두육성 6개, 직사각형의 좌보·우필 4개, 두정형태의 금속장식 4개, 옆면의 가장 끝부분 사다리꼴형 띠돈 2개, 그리고 등 쪽의 뒷면에는 복두칠성을 의미하는 7개의 직사각형 띠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의 직사각형태가 없어지고 파리를 틀어 놓은 것처럼 말려 보관되어 가죽이 그대로 굳어 있었으며, 두 겹의 가죽이 벌어져 안쪽이 노출되었다. 장식으로 부착된 무소뿔과 금속틀의 일부가 탈락되었으며, 무소뿔을 감싸는 금속틀(타미부분)은 모서리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오염물 등 잔여물이 고착되어 있었으며, 등이 닿는 뒷면인 배부분의 직물은 열화되어 안쪽의 종이심지가 그대로 들어난 상태였다. 또한 서대의 앞면(삼태)의 손상으로 일부분 수리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붉은색 실을 사용하여 가죽틀과 버클을 감싸 준 모습도 확인되었다. 의뢰받을 당시와 전시 개막 사이의 기간이 짧아 서대의 원형복원과 일부 오염물 제거 등 최소한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응급처리만 진행하도록 보존처리를 계획하였다. 유물의 전체적인 처리 전 상태를 표2에 정리하였다.

처리 전 상태를 확인한 서대의 보존처리는 오염도와 직물의 손상상태에 따른 세척, 유물의 원형 손상과 결손된 부분을 보강하여 형태복원을 진행하는 손상부 보수 순서로 진행하였다.

표2. 처리 전 손상부위

처리 전 상태	
	
원형이 훼손 된 모습	탈락된 장식들
	
배부분의 직물이 열화되어 드러난 심지	부분수리 흔적
	
오염물 흔적	가죽이 드러난 모습

3.2. 오염물 제거

세척은 서대의 상태에 따라 건식표면세척 후 부분을 습식세척 하여 오염물과 구김을 제거를 함께 진행하였다. 표면과 두 겹의 가죽들 사이, 장식면에 먼지 및 이물질 등이 많이 남아있어 Vacuum Cleaner(MUNTZ 555-MU-E HEPA GS, Netherlands)를 이용한 진공흡인방법으로 먼저 세척을 실시하였다^[도4(a)]. 이후 남아있는 직물부분의 오염물은 염료의 이염을 방지하고자 약한 온도의 수증기분사(Preservation Pencil, Hand-Steam)로 습식세척을 진행하였다. 직물 외 금속 등의 장식은 알콜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도4(b)].



도4. 세척 과정

3.3. 형태 복원

오랜 시간 건조한 환경에 있었던 대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미세하게 가습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올려서 가죽과 직물에 유연도를 주면서 형태를 잡아주었다. 단단해진 가죽이 한 번에 형태를 잡아주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천히 시간차를 주고 이동하여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적정 온습도(20℃, 50% RH)에서 형태가 고정될 수 있도록 자연건조를 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생긴 불필요한 구김과 형태를 함께 제거해 주었다^(도5).



도5. 형태복원 과정



(a) 세척 전 · 후



(b) 오염물 제거 전 · 후

3.4. 손상부 보수

직물의 열화가 많이 된 부분은 직물이 접히는 가장자리 부분이다. 특히 허리 등부분이 맞닿는 배부위의 청색 주자직물의 손상이 심하였는데 열화되어 찢어져 안쪽에 댄 한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주름만 제거하고 그대로 보관할 경우 2차 손상이 발생되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결손부위를 복원하고 약해진 직물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보수를 실시하였다.

보수를 하기 위하여 약한 온도의 수증기분사를 하여 고정된 직물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직물은 이염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분무식 습식세척을 한 번 더 진행하였다^[도6(a)].

보강제는 유물의 재질과 강도에 맞춰 보수에 사용되는 직물(무문단, 100% Silk)을 쪽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바느질은 보수 및 보강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땀의 간격이 2mm정도 크기로 육안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재보수나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역적인 방법의 바느질을 실시하였다^[8]. 찢어지고 약해진 부분을 보강한 후 다시 한지심지를 넣어 분리 하였을 당시 위치 그대로 배부분에 고정하여 주었다. 고정에 사용한 접착제는 어교(Fish Glue)를 사용하였다^[도6(b)].



(a) 배부분 분리



(b) 보존처리 전·후



도6. 배부분 처리과정

직물부분의 보수가 끝난 후에는 분리되었던 장식품과 떨어져 있던 가죽들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무소뿔은 모두 얇은 가죽을 사용하여 받침을 사용하였으며, 틀과 연결은 가죽에 철사를 끼워 부착되어있다^[도7(a)]. 원형의 남두육성은 금속테가 없

이 틀에 철사로 연결되어있다. 가죽받침만 떨어진 무소뿔은 어교를 사용하여 접착해^[도7(b)], 가죽받침에 철사가 끊어져 떨어진 삼태나 타미 같은 부분의 장식은 2차로 가해질 부식을 막기 위해 철사 대신 굵은 실을 사용하여 고정해 주었다. 특히 타미를 감싸던 금속틀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무소뿔을 감싸는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번 처리에서는 형태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모서리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고정을 해주었으며, 추후 재처리를 위해 어교를 사용하였다^[도7(c)].



(a) 철사로 고정된 장식



(b) 남두육성 처리 전 · 후



(c) 분리된 타미 처리 전 · 후



도7. 장식품 고정 작업

3.5. 보관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온도, 습도, 조도, 충해 등의 환경적 요인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작업을 진행한다. 유물간의 상호 마찰로 인해 추가 손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용지를 사용하여 마찰부위를 지지하여 준다. 또한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 틀을 만들어 완충과 고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보관하여 준다.



도8. 서대 보존처리 전·후

4. 결론

본 연구는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유물’ 전시의 대상유물인 윤용구 서대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기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대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구조의 명칭, 시대에 따른 형태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다. 처리 대상품인 서대는 1품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품대로서 왕의 옥대 다음으로 비싸고 귀한 품대이다. 서대를 장식하는 무소뿔[서각]은 품질에 따라 3가지 독특한 무늬로 구분되는데, 그 중 포도문형은 밝은 갈색 주변으로 작은 원형의 흑갈색 무늬가 중앙에 밀집한 모습으로 윤용구의 서대와 유사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고급품에 속하는 질 좋은 서대임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유물의 처리 전 상태 조사 → 오염물제거 → 형태복원 → 손상부 보수 → 보관의 순서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윤용구 서대는 처리 전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부 수리 흔적도 확인되었지만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복원 및 탈락된 띠돈의 고정 등 전 시를 위해 원형을 유지 할 수 있는 처리를 목적으로 응급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존처리 의뢰 당시 일부 수리된 흔적이 있는 상태였으며, 변형된 수리 부분의 형태를 복원하는 재 보수 과정을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도록 보존처리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양옆에 버클이 없는 일체형 구조이며, 각이 진 방형의 둘레를 가진 형태로 19세기 이후 착용되는 품대의 형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아있는 유물과 초상화 자료를 통해 서대의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형태적 특징, 그리고 세부 구조 등을 비교하여 보존처리 대상 유물이 19~20세기 제작된 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추가처리를 통해서 금속 및 재질의 분석 등을 포함하여 품대의 구조 및 특징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국립한글박물관, *공주, 글씨 덕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유산*,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2. 『經國大典』, **卷3**, 禮典.
3.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제61권 10호*, p141~143, (2011).
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품대*, <https://museum.dankook.ac.kr/web/museum.com>, (2021).
5. 국립중앙박물관, *서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list.com>, (2021).
6. 국립고궁박물관, *화폭에 담긴 영혼 - 초상肖像*, p23,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07).
7. 국립중앙박물관, *새 보물 낚시였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20).
8. 황진영·황소정·박승원, 유경중 柳慶宗 1565-1623 묘 출토복식 고찰, *박물관보존과학* **15**, p44, (2020).